

목 차

간행사
역자 서문
초판 해설
서문序文
일러두기

제1장 선비의 예절

1. 성품과 행실 / 25
2. 말하기 / 34
3. 의복과 음식 / 41
4. 행동 / 49
5. 몸가짐 / 62
6. 공부와 가르침 / 70
7. 인륜人倫 / 80
8. 교제交際에 대하여 / 91
9. 아랫사람을 대하거나 부릴 때 / 117
10. 사물에 대한 대처 / 123

제2장 부녀자의 예절

1. 성품과 행실 / 141
2. 말하기 / 148
3. 의복과 음식 / 152
4. 행동 / 161
5. 자녀 교육 / 167
6. 인륜人倫 / 173
7. 제사祭祀 / 179
8. 부녀자의 살림살이 / 182

제3장 어린이의 예절

1. 행동 / 191
2. 공부 / 199
3. 어른을 공경함 / 210
4. 바른 습관 / 217

제장

선비의 예절

선비는 오늘날 말하면 학문을 닦은 인격자라 할 수 있다.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사고 방식, 그리고 적절히 조화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의 실천, 즉 행실 또한 방정方正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바른 정신이 건전한 몸의 행실을 낳지만, 정신은 또한 몸의 행실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바른 행실을 위해 예절이라는 형식이 필요하다. 예절이 몸과 마음을 묶어주기 때문이다. 예절은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되어야 한다. 사소한 것부터 소홀히 할 수 없다.

1. 성품과 행실

1-1 활달한 성격性格은 본래 쾌활하므로 고루한 자보다 나은 듯하다. 그러나 활달하기만 하고 아무런 꺼리는 바가 없다면 예법禮法의 범위를 벗어나서 미치광이 짓을 하게 되어 도리어 고루한 자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선비가 이 지경이 되면 역시 한심한 일이다.

그러므로 호걸豪傑 기운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활달하다고 하는데, 이들 역시 때때로 의리에 관한 글을 읽어 방자한 행동을 경계하고, 또 동료 중에서 엄숙한 사람 한 명을 골라 그에게 수시로 경계를 받는다 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른바 활달이란 것이 어찌 도적盜賊과 같은 기질로 변해버리지 않겠는가.

1-2 자신이 생각하는 온화한 성품이 느리고 태만怠慢한 성품이 아님을 어떻게 장담하겠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굳세다는 성품이 경거망동輕舉妄動의 성품이 아님을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분개하는 태도는 엄숙에 가깝고, 빈틈없는 행동은 차분한 성격에 가깝고, 바로잡으려는 것은 바른 행실에 가깝고, 주견이 없는 것은 서로 잘 어울리는 것에 가까우니, 조금만 구분하지 않으면 올바른 것과

의 거리가 더욱 멀어진다.

1-3 남의 진실眞實함을 취하고 우직愚直함은 용서하며, 남의 순박淳朴함은 취하고 어리석음은 용서하며, 남의 개결介潔함을 취하고 협애狹隘함은 용서하며, 남의 민첩敏捷함은 취하고 소홀疏忽함은 용서하며, 남의 바른 시비분별是非分辨은 취하고 행동이 약간 거친 것은 용서하며, 남의 신실信實함을 취하고 고집스러움은 용서해야 한다. 단점을 인해 장점을 보아야 하고, 장점을 꺼려 단점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남을 포용하던 방법이다.

1-4 사람은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자력自力으로 살아야 한다. 선배先輩 유정모柳鼎模에게서 나는 그 예例를 보았다. 사람은 또한 깨끗한 절개로 몸을 지켜야 한다. 고사高士인 윤유성尹維城에게서 나는 그런 예를 보았다.

유정모는 글을 읽고 가정을 다스릴 적에 화려함을 버리고 진실함을 취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다. 인품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이웃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감복하였다. 밭(簾)을 짜고 새끼를 꼬며, 가지를 심고 포도를 심어서 그것을 팔아 생활하였다. 식구 열 사람 중에 어른이나 어린이를 막론하고 모두 맡은 일이 있어서 각기 생활을 도왔고, 가정의 법도가 정연하였다. 비록 가난했지만 죽을 때까지 굶주리지 않았다.

윤유성은 여염집 사람인데 빈궁貧窮하고 고독孤獨하며 처자도 없

었으므로 과부인 누이동생에게 의지해 살았다. 항상 울곡栗谷 이이李珣(1536~1584) 선생과 중봉重峯 조헌趙憲(1544~1592) 선생을 표준으로 삼았고, 남에게서 물건을 받는 일에 엄정하였다. 한번은 훈련대장訓練大將 아무개가 그의 명성을 듣고 후한 물품을 주었으나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그의 끈은 절개는 모두 이와 같았다.

1-5 무릇 마음을 간사한 데 빠뜨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악한 귀신이 따르고, 마음을 바른 데 오로지 쓰는 자에게는 좋은 신령神靈이 따를 것이다.

오직 정진精進하는 힘이 있고 물러서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원대한 목표가 있고 쉬는 때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옛날 사람으로 크게 성취한 자 중에도 간혹 머리가 노둔한 사람이 있었으니, 근심할 것이 못 된다.

1-6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본심本心을 간직하고 착한 성품을 함양하며,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 그리고 의관衣冠은 반드시 정제하고 걸음걸이는 반드시 신중히 할 것이며, 말은 경솔하고 아비하게 하지 말고, 앉고 서는 것은 절도 없이 제멋대로 하지 말 것이며, 일을 하는 데에는 공경恭敬으로써 하고 처신하는 데에는 경우 바르게 할 것이며, 허위虛僞를 지어내지 말고 남과 다투지 말 것이다. 그리고 착한 말을 들으면 신분의 비천을 따지지 말고 복종해야 하고, 과실過失이 있으면 조금도 기탄 없이 고쳐야 한다.